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12.05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기관 총 389개 ('17.12.05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기관* 가입승인 *캐나다(1), 스페인(1)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회원기관 총 47개 ('17.12.05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평화엔지니어링 가입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E 총 158개 ('17.12.05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카 국장, 美 지속가능에너지 사업협의회* 25주년 기념 글로벌 리더십상」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미국 지속가능에너지 사업협의회는 25주년 기념으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준 3인 선정. CTCN 유카 국장은 前 UNFCCC 사무국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前 미국 국무부 기후변화 특사 조나단 퍼싱(Jonathan Pershing)과 공동 수상함 <p style="font-size: small;">* The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Energy: 에너지효율,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기업 및 무역협회 기관이 모인 협의회</p> <p style="text-align: right;">(CTCN, 11/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자루카(Banja Luca),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소 건설」 EBRD로부터 800만 유로 지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보스니아의 2번째로 큰 도시인 반자루카의 난방을 해결하고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49메가와트 용량의 10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예정. 이를 위해 EBRD에서 약 8백만 유로를 제공할 예정

		(CTCN, 11/24)
		<p>○ CTCN 사무국장 방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3일 열린 ‘CTCN과 국내 회원기관 간 협력 강화 워크숍’에서 유카 사무국장은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내 CTCN 회원기관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기후기술협력에 대한 지원 독려 <p style="text-align: right;">(아시아타임즈, 11/23)</p>
		<p>○ 인천시, 제5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3일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인천시가 GCF(녹색기후기금)와 기후변화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 - L지역의 환경단체, 기후변화강사, 기후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 일반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 <p style="text-align: right;">(아이엠에스, 11/23)</p>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APCC	<p>○ APEC 기후센터, 아세안 국가 재난관리방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재난관리 최종 심포지엄’에서 APCC는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방안을 제시, 이 지역 국가들의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사용되는 종합 방법론을 설명 - 이번 심포지엄은 APEC기후센터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수행한 ‘아세안 재난·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웹기반 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APEC기후센터는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수행할 계획 <p style="text-align: right;">(국토일보, 12/5)</p>

	산업부	<p>○ 산업부, 국내 최대 기후변화대응 컨퍼런스 ‘기후위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기후위크 2017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주제로 10개 세션에서 21개 발표가 이뤄짐 - 본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 해외사례, 4차 산업혁명과 기후기술,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지정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 (파이낸셜뉴스, 12/5)
	일반	<p>○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지열발전소는 2010년 12월 시작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하나로, 2012년 여름부터 시추를 시작 - 과연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다른 지역의 지열발전은 계속 추진해도 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는 추세 - 일부 지질학자들 사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 전문가는 “스위스 바젤에서는 3년의 조사 끝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다른 지역의 지열발전 개발을 멈추지는 않았다. 포항지진으로 모든 지열발전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p>* 지열발전이란 땅속에 존재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든 뜨거운 물을 끌어올린 뒤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칭. 지열은 온천·지역난방처럼 직접 이용하기도 하고 전기로 변환하는 지열발전처럼 간접적으로 이용. 또 지하 100m 정도 내려가면 연중 16~18도가 유지되는 성질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열 열펌프로도 많이 사용 (한겨레, 12/4)</p>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 일반	<p>○ 정책불확실성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계획기간 (2018~2020년)을 한 달 앞두고 배출권할당량조차 결정하지 못한 탓에 기업들은 배출권이 부족해 내년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은 연중최고치인 t당 2만8000원,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적절한 배출권 기준가격인 1만원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ETS)가격 (9700원)의 3배 수준으로 ‘이상급등’ 수준 - 정부는 배출권총괄부서인 환경부로 업무이관을 완료하고, 내년 빠른 시일 내 2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할 것 <p style="text-align: right;">(디지털타임스, 12/3)</p>
		<p>○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동북아탄소시장 연계강화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학회에서는 특별기획된 세션을 통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 6조와 기후기술협력 이슈 파악, 또한 실질적인 목표달성방안을 논의 - 특히 파리협정 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메커니즘과 공동크레딧제도에 대한 분석 및 동북아탄소시장에 대한 쟁점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짐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에너지, 12/4)</p>
		<p>○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 국내 발전·화학·철강·시멘트업종 21개 업체 탄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28일 21개 업계 대표 기업들은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을 각각 제출 - 탄원서 성격인 이 건의문에는 한국전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SK E&S 등 발전업체를 비롯해 현대제철, LG화학, 한화케미칼,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등이 이름을 올림 <p style="text-align: right;">(에너지경제, 11/29)</p>
		<p>○ 개도국, 지자체 혹은 대규모 국가차원의 대형사업을 신뢰구축된 파트너와 진행하길 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칼럼에서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COP23에서 군소도서국의 ‘적응’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이 강조되었다고 밝히며, 기존의 한국주도 감축사업이 개도국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 - 개도국은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감축사업만큼 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지자체 혹은 국가차원의 대형 사업을, 오랜 신뢰가 형성된 파트너와 안정적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최근 논의중인 민간기업들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조성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재원을 통한 안정적 재원운용이

		<p>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수익창출과정에서의 개도국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이투뉴스, 11/27)</p> <p>○ GTC, 제2차 케냐 기술지원사업 수주 - 지난 제2차 케냐 기술지원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공개입찰이 아닌 CTCN의 요청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됨 - 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로써 3번째로, 본 사업을 통해 케냐의 북부 건조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형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향후 2000억 원 이상의 녹색기후기금(유엔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만든 국제 기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매일경제, 11/13)</p>
<p>국외</p>	<p>미국</p>	<p>○ ClimateTECH 컨퍼런스 개최 -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본 컨퍼런스는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많은 기업 및 연구소가 참여 - 특히 구글에서 인류의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시험하는 랩 'X'의 다양한 아이디어(바닷물을 연료로 전환하기, 소금에 에너지 저장하기 등)가 공유되고 성공사례만큼이나 실패사례와 그 이유에 대한 발표도 많아, 연구의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돋보임 (ClimateTech, 2017)</p>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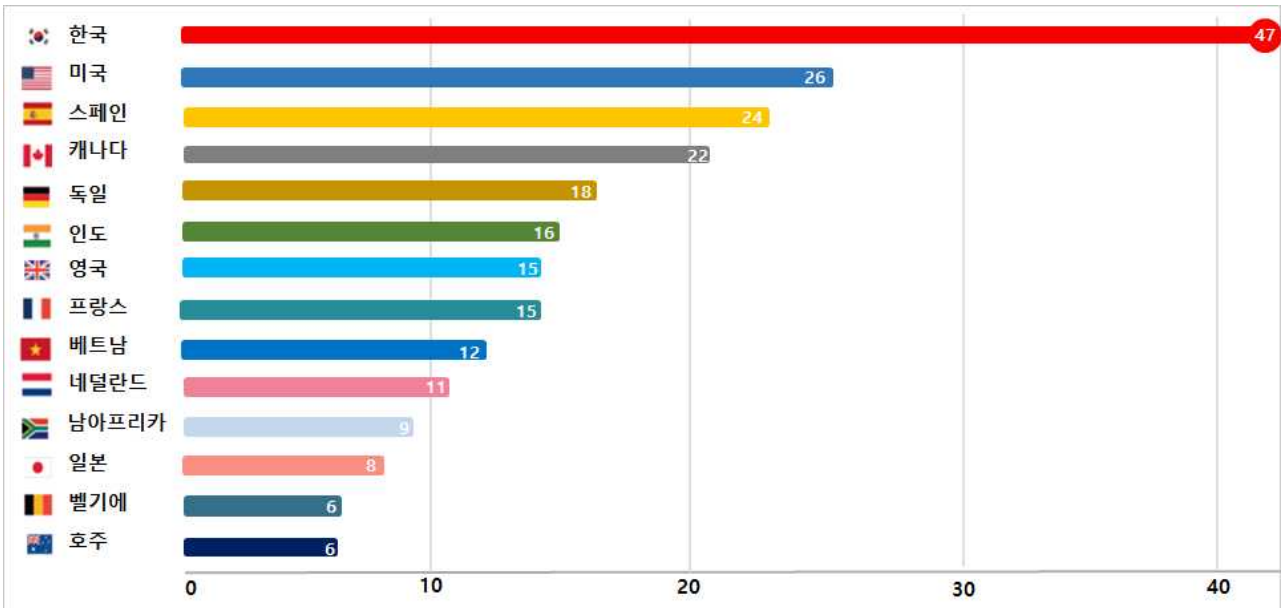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11.24.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70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7.11.24.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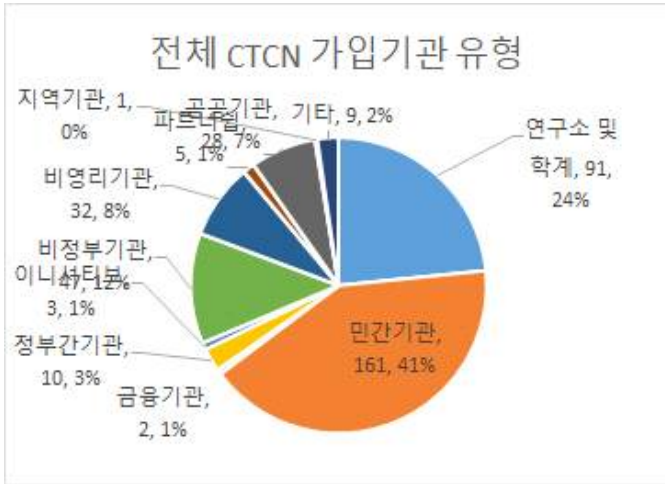
- 총 389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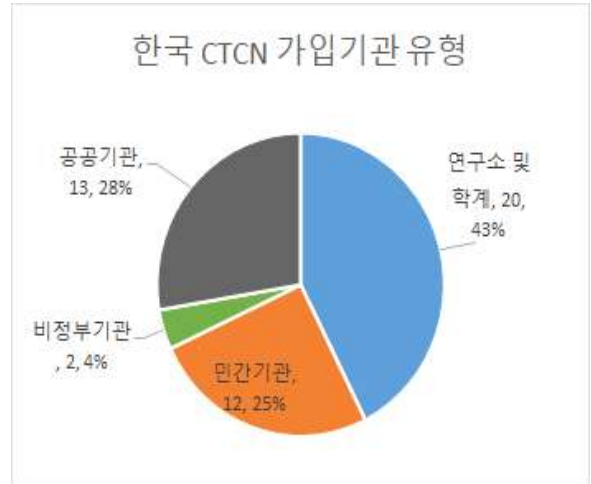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11.24. 현재)



<CTCN 전체 389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7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389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61건으로 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91건(24%),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7건(12%), 32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7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44%)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28%)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11.24.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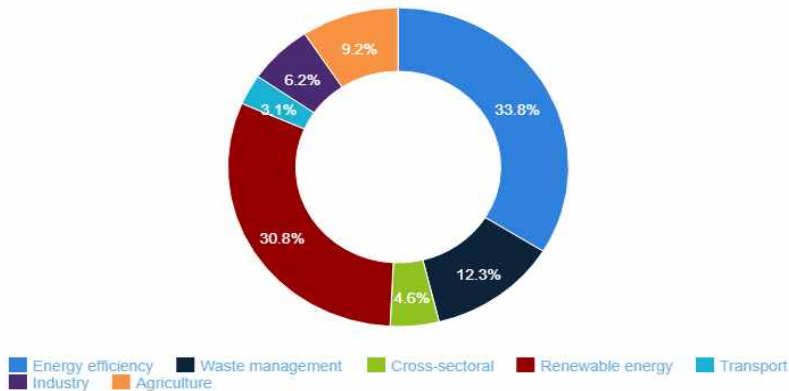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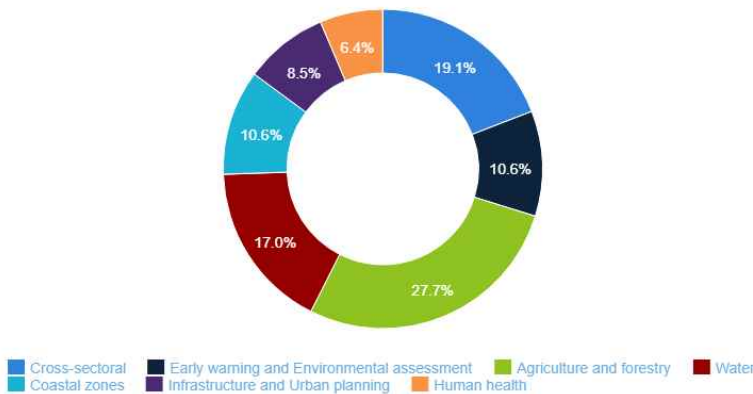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우(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47	평화엔지니어링	N407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11.03 현재)

- 제출된 TA : 196개
- Active TA : 108개 (감축관련 TA-44.7%, 적응관련 TA-29.3%)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